

현대·기아차 실내 공기 쾌적해진다

에어컨 곰팡이 예방 '애프터 블로우' 등 공조 기술 개발...제네시스 등 모든 신차에 적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공조 기술을 개발해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비자들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 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공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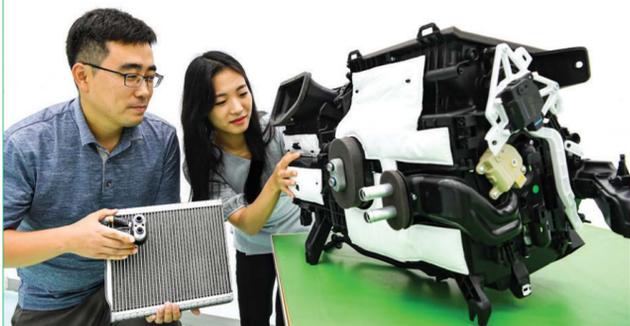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신규 공조 시스템은 '애프터 블로우' (After Blow) 기술과 '멀티 에어 모드' (Multi Air Mode) 기술, '실내 미세먼저 상태표시 기술' 등 3가지다.

우선 애프터 블로우 기술은 여름철 차량 내 에어컨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응축수가 맺혀있는 에바포레이터(증발기)를 건조시키는 것으로, 축축한 에바포레이터를 바람으로 말려 곰팡이 증식을 예방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30분간 에바포레이터에 생긴 응축수의 자연배수 과정이 진행된다. 이후 애프터 블로우는 공기를 불어주는 블로워 모터를 작동시켜 바람으로 증발기와 공기 통로에 남은 응축수를 10분간 건조시킨다. 이 기능이 작동될 때 공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자동 전환돼 실내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기존 차량은 에어컨 작동 후 시동을 끄면 증발기에 남아 있는 응축수 탓에 곰팡이 등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시동을 끄고 난 뒤엔 배터리 방전 우려 때문에 공조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 신규 공조 시스템
- 애프터 블로우(After Blow)
- 에어컨 사용 후 시동 꺼도 에바포레이터(증발기) 건조, 곰팡이 증식 예방
- 멀티 에어 모드(Multi Air Mode)
- 운전석·조수석 등 다수의 송풍구에서 은은한 바람이 골고루 퍼져
- 실내 미세먼저 상태표시
- 공기 상태 실시간 측정...시트·매트 청결상태 등 간접 안내 효과



현대자동차그룹 공조설계팀 연구원들이 애프터 블로우 기술의 핵심 부품인 에바포레이터와 블로워 모터를 살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프터 블로우 기술은 지능형 배터리 센서(IBS)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충전량이 부족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또 에어컨을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외부 기온이 낮을 때도 작동하지 않는다.

멀티 에어 모드 기술은 다수의 송풍구를 활용해 은은한 바람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주며 냉방과 난방 때 모두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멀티 에어 모드를 작동시키면 기존 송풍구 외에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위치한 멀티 에어슬롯에서 바람이 분산돼 나온다. 기존과 비교하면 전체 풍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다수의 송풍구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바람이 나와 실내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멀티 에어슬롯은 미세한 구멍이 뚫린 에어스크린이 바람을 부드럽

게 만들어주고 바람이 직접 탑승자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 피부자극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멀티 에어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다.

새로운 실내 미세먼저 상태 표시 기술은 차량 실내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치화된 미세먼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 효율적으로 차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실내 미세먼저 상태 표시 기술은 PM 2.5 기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단위의 숫자로 표시해 쉽게 공기 질 상태를 알려주고, 초미세먼지 농도 및 오염도에 따라 컬러를 달리해 시인성도 높였다. PM2.5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0~15 $\mu\text{g}/\text{m}^3$ 이면 파란색, 16~35 $\mu\text{g}/\text{m}^3$ 이면 초록색, 36~75 $\mu\text{g}/\text{m}^3$ 이면 주황색, 76 $\mu\text{g}/\text{m}^3$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공기 청정 버튼을 누른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주황색) 단계 이상으로 높아지면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해 실내 공기를 정화해준다. 공조기의 풍량은 3단에서부터 최대치인 8단계까지 자동으로 조절되고 내기순환으로 설정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며, 실내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이 작동한다.

또 공기 청정 모드에서 빠르게 실내 오염 수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에어컨 필터의 교체 또는 오염된 시트나 매트를 청소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안내 효과도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공조 기술 3가지를 향후 출시 예정인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등 모든 신차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반기 전기차 2만2267대 판매

국내차 출시 늦어진 사이 美 테슬라 보조금 쓸어가

900억원 수령 제도 개선 필요...점유율 43.4%로 경중

국내 자동차업계의 만행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지 않은 사이 미국산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테슬라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900억원을 쓸어간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는 2만2267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 승용차의 판매량은 2.7% 감소한 1만6359대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3.1%가 감소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신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보조금 축소, 개인완속 충전기 보조금 폐지 등이 맞물린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수입차는 신모델 판매 증가 등으로 무려 56.1%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 화물차는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 있는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판매가 급증, 상반기에만 연간 보조금 규모(5500대)의 91.5%인 5031대가 판매돼 전체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

전기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64.5% 증가한 181대가 보급됐다.

업체별로 보면 국내 제작사는 작년 상반기보다 13.7% 감소한 1만4563대를 판매해 작년 점유율 93.2%에서 65.1%로 하락했다. 현대차는 전기 화물차의 폭발적 성장에도 승용차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가 2.9% 줄었고, 기아차 역시 승용차 판매가 54.6% 하락해 전체 판매가 작년보다 23.7% 감소했다.

반면 미국산 테슬라는 모델3의 본격적 투입 확대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 대비 1587.8% 성장하면서 상반기 전기 승용차 점유율이 43.3%로 확대됐다. 상반기 승용차 보조금 수령 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전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중 43%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전기승합차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작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계 버스 판매가 작년 대비 105.9%가 성장해 상반기 전기버스 중 중국산의 점유율은 작년 30.9%에서 38.7%로 높아졌으며, 보조금은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 중 59억원(35.1%)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 동력차 보급은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만 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금호타이어 "휴가철 '드라이브 스루'로 무상점검 받으세요"

금호타이어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안전 점검 캠페인을 펼친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대면&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호타이어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등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금호타이어는 안전점검 서비스 외에도 자사의 프리미엄 제품 '마제스티9 TA91'와 '엑스타 PS71', 고성능 프리미엄 SUV 타이어 '크루젠 HP91', '크루젠 HP71'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된다. 특히 '마제스티9'는 금호타이어의 프리

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의 후속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출시 초부터 고급세단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시장에 입소문이 돌며 기존 제품에 이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문형중 금호타이어 CS팀장은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안전점검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타이어의 피로도가 높아지므로 여행 전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및 타이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고속도로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트럭서비스용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6월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 324대...전년비 11.5% 감소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324대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감소한 것이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볼보트럭이 130대로 가장 많은 상용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스카니아 69대, 만 61대, 메르세데스-벤츠 42대, 이베코 22대 순으로 파악됐다.

차종별로는 트럭차가 167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트랙터 87대, 덤프 42대, 카

고 23대, 버스 4대, 밴 1대 순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수입 상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전년보다 18.2% 감소한 2101대로 집계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